

5/14/23

설교 제목: 스가랴가 본 여덟 번째 환상

전하는 이: 김순배 목사

말씀: 스가랴 6 장 1-8 절

네 병거

- (속 6:1)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 산이더라 **절관주** 단 7:3, 속 1:18
- (속 6:2)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절관주** 속 1:8, 계 6:4
- (속 6:3)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롱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 (속 6:4)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 (속 6:5)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서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절관주** 시 104:4, 히 1:7
- (속 6:6)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롱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절관주** 렘 1:14, 렘 4:6, 사 43:6
- (속 6:7)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절관주** 속 1:10, 욥 1:7
- (속 6:8)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본문은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여덟 가지 환상 중 여덟 번째 환상입니다.

붉은 말, 검은 말, 흰 말, 어롱진 말들이 메고 있는 네 병거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에게 여덟 가지 환상을 보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환상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고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는 예언을 주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시며 성전 재건 공사를 촉구하십니다.

첫 번째 환상은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 또 다른 붉은 말과 자주빛 말과 흰 말이 서있는 환상입니다.

붉은 말을 타고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천사가 하나님께 언제 유대와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냐고, 이들에게 노하신지가 70 년이 지났다고 여쭙자 하나님께서 “내가 불쌍히 여기므로 이미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환상은 네 개의 뿔과 네 명의 대장장이 환상입니다.

유대를 흘렸던 뿔들을 대장장이들이 떨어뜨리는 환상입니다.

네 개의 뿔은 그동안 이스라엘을 핍박했던 주변 강대국들을 가리킵니다.

세 번째 환상은 한 소년이 예루살렘을 측량하기 위해 손에 측량줄을 잡고 있는 환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불성곽이 되어주실 것이고 그들 가운데 머무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임마누엘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 환상은 여호수아가 불에 그슬린 누추한 옷을 입고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있고 사탄이 그 옆에서 여호수아를 정죄하는 환상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정죄하는 사탄을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입고 있는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정결한 관을 머리에 씌우십니다.

다섯 번째 환상은 순금 등잔대와 그 곁에 있는 두 감람나무 환상입니다.

하나님은 스룹바벨에게 성전 건축은 너희들의 힘과 능력으로 완성할 수 없고 오직 당신의 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십니다.

또한 스룹바벨이 성전 건축을 마치게 될 것이라고 하시며 당신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큰 산과 같은 장애물들을 무너뜨려서 평지처럼 만들 것이라고 하십니다.

여섯 번째 환상은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은 온 땅에 내리는 저주라고 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결을 촉구하십니다.

일곱 번째 환상은 한 여인이 에바 속에 넣어서 시날 땅으로 옮겨지는 환상입니다.

에바와 여인은 악입니다.

악을 거룩한 땅에서 저주의 땅으로 옮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문에 나오는 여덟 번째 환상입니다.

붉은 말 검은 말 흰 말 어룡진 말들이 두 구리 산 사이에서 네 대의 전차를 메고 나옵니다.

붉은 말 검은 말 흰 말 어룡진 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두 구리 산 사이에서 나오는 전차들은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을 수행합니다.

이 여덟 번째 환상은 붉은 말을 탄 사람이 서있고 그 뒤에 또 다른 붉은 말과 흰 말과 자주빛 말이 있어 온 땅에 두루 다니며 여호와께서 맡기신 사명을 수행하는 첫 번째 환상과 유사합니다. 환상을 끝내면서 첫 번째 환상에서 다룬 주제를 다시 상기시킴으로써 그 주제를 강조하고 발전시키며 마무리한 것입니다.

(속 1:7) 다리오 왕 제이년 열한째 달 곧 스باط월 이십사일에 잇도의 손자 베레갸의 아들 선지자 스가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속 1:8)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주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첫 번째 환상에서 붉은 말 흰 말 자주빛 말이 세상을 둘러보는데 그친데 반해 마지막 환상에서는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합니다.

또 첫 번째 환상과는 달리 이번 환상에서는 전쟁을 수행하는 병거들이 등장합니다.

네 병거가 두 구리 산 사이에서 나옵니다.

(속 6:1)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 산이더라

(속 6:2)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속 6:3)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룡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두 구리 산과 병거들은 모두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병거를 메고 있는 붉은 말, 검은 말, 흰 말, 어룡진 말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냅니다.

병거는 하나님의 군대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싸우면 무조건 승리입니다.

천하에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시되 철저하고 완벽하게 하실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구리 산에 대해서는 몇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째,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 산과 감란 산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그렇다면 두 구리 산 사이는 시온 산과 감란 산 사이에 있는 기드온 골짜기를 가리킵니다.

둘째, 성전 입구에 서있는 구리로 만들어진 두 기둥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실제로 솔로몬 성전에는 '야긴'과 '보아스'로 불리는 거대한 두 구리 기둥이 있었습니다.

이 견해에 따르면 두 구리 산은 하늘의 성전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째, 구리 산을 구리로 형성된 산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이 견해에 따르면 구리 산은 능력과 승리를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중 어느 견해를 취한다고 해도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다음은 병거를 메고 있는 말들 색깔의 의미입니다.

첫째 병거는 붉은 말이 메고 있습니다.

붉은 색은 피와 희생, 그리고 생명을 상징합니다.

요한 계시록에는 붉은 말을 탄 자가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세상에 속한 자들끼리 서로 죽이게 한다고 기록하고 하고 있습니다.

(계 6:1) 내가 보매 어린 양이 일곱 인 중의 하나를 떼시는데 그 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의 하나가 우렛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계 6:3)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계 6:4)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그러므로 붉은 말이 메고 있는 병거는 악한 자들의 생명을 제거하기 위해 보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병거는 검은 말이 메고 있습니다.

검은 색은 기근과 절망을 상징합니다.

요한 계시록에는 검은 말을 탄 자가 저울을 들고 있는데 그것은 기근으로 심판하는 모습입니다.

(계 6:5)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계 6:6)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되로다 또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그러므로 검은 말이 메고 있는 병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 기근을 일으켜 심한 고통과 절망, 다툼 가운데로 몰아 넣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검은 말은 첫 번째 환상에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세째 병거는 흰 말이 메고 있습니다.

흰 색은 승리와 기쁨을 상징합니다.

요한 계시록에도 흰 말은 승리자의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계 6:2)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네째 병거는 어룡진 말이 메고 있습니다.

‘어룡진’이란 단색이 아닌 섞인 색을 말합니다.

요한 계시록에서는 청황색 말로, 첫 번째 환상에서는 자주 빛 말로, 여기서는 어룡진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요한 계시록에는 청황 색 말을 사망이라고 하며 음부가 그 뒤를 따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 6:7)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계 6:8)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사분의 일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써
죽이더라

그러므로 어룡진 말이 이끄는 병거는 이 땅의 사분의 일을 죽이기 위해 보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스가랴가 천사에게 이 환상의 의미를 묻자 천사는 두 구리 산에서 나오는 네 병거는 하늘의 네
바람으로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슥 6:4)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이까 하니

(슥 6:5)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여기서 ‘바람 (루아흐)’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천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세상에 나가 땅에 두루 다니며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창조주요 구원주요 섭리주요 심판주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천사들을 부려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환상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계시해 주시고 있습니다.

악인이 멸망 당하고 의인이 구원을 받는 시대가 도래할 것임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말들이 사방으로 나갑니다.

(속 6:6)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룡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속 6:7)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당시 이스라엘은 방위를 자신들의 땅을 기준으로 정하였습니다.

자신들의 땅에서 북쪽에 있으면 북쪽 땅, 남쪽에 있으면 남쪽 땅, 동쪽에 있으면 동쪽 땅, 서쪽에 있으면 서쪽 땅이라고 합니다.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갑니다.

북쪽에는 앗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등 역사상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거의 모든 국가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지만 스스로 교만하게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특히 바벨론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사단의 세력을 상징합니다.

흰 말이 그 뒤를 따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애매모호합니다.

흰 말이 검은 말의 뒤를 따라 북쪽으로 간 것인지, 아니면 검은 말이 나간 후 흰 말이 뒤이어 나갔다는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어룡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갑니다.

남쪽에는 애굽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랜 세월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애굽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건장한’은 네 가지 색 말 모두를 수식합니다.

네 가지 색 말 모두 권능과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권능과 권세를 부여받은 하나님의 사자들이 땅을 두루다니며 하나님의 뜻을 좇아 온 세상을 심판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심판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자 기뻐하고 환희합니다.

(속 6:8)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하나님은 오랫동안 참고 계시다가 때가 되자 악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흡족해 하십니다.

당신의 공의가 이 땅에 실현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여덟 가지의 환상은 궁극적으로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격려 촉구하시며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회복, 그리고 성전 재건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성전 재건을 이토록 중요시 여기시는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이며 통치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지 아니하고 그들을 떠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후 약 85 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에게 환상으로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다시 돌아왔다고 하시며 성전을 재건하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 머무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스가랴를 통해 이 하나님의 약속을 전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재건에 힘썼을 것입니다.

결국 성전은 공사가 재개된 지 4 년만인 다리오 왕 6 년 BC 516 년에 완공됩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심판받아 죽느냐, 구원받고 영원히 사느냐를 가르는 일입니다.

우리 안에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십시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찾아 오셔서 우리 안에 성전을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이렇게 지어진 성전은 이전 어떤 화려한 성전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임마누엘의 영광입니다.